

조각보와 매듭을 활용한 전통 배자 디자인 개발

양 속 향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Development of Traditional Baeja Design Applied Jogakbo and Knot

Suk-Hyang Yang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014. 9. 15. 접수; 2014. 11. 10. 수정; 2014. 11. 13. 채택)

Abstract

In this study, Creative motifs using face composition of Jogakbo and Knot Symbol were developed, and applied to traditional Baeja of Joseon Dynasty to develop design contents of traditional clothes. As for study method, 7 motifs of new formative image that integrates traditional beauty and contemporary sense were developed by applying Knot Symbols and face compositions of Jogakbo with the use of Adobe Illustrator CS6 and Adobe Photoshop CS6 vector graphic software. The motifs were designed in contemporary image in face compositions like rectangle pattern, triangle pattern, dual rectangle pattern, vertical and horizontal pattern, pinwheel pattern, gojunmun pattern and free pattern by involving various changes like repetition, rotation, reduction, expansion and decomposition and using the colors used in the Jogakbo. It is desired that through this study, traditional Baeja may develop to bear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image so that our traditional clothes design may become global. Also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culture products of Hanbok like Jeogori, pants and skirt that require change of design in the global era while maintaining traditional beauty to appeal to the emotions of world citizens.

Key Words: Knot Symbol(매듭기호), Jogakbo(조각보), Jeogori(저고리), Baeja(배자), Hanbok(한복)

I. 서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시대에 세계 각국은 다른 나라와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 매개체가 되는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전통복식을 원형으로 개발한 현대적 이미지를 패션 산업에 활용하여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한복은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임현주, 조효숙, 2010).

한복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우리 민족의 감정 및 생활 의식이 반영된 우리 민족 고유의 멋을 간직한 전통문화 자산이다. 한복의 독창적인 전통미와 세계인의 보편성을 담은 재창조적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전통의상 배자는 현대의 조끼와 비슷한 형태이나 정형화되지 않고 다양하며 남(男), 녀(女), 노(老), 소(少) 모두 착용 가능한 옷이다. 또한 청바지, 블라우스 등 현대의상과 매치가 잘 되는 옷으로서 전통적인 이미지와 현대적 이미지가 함께 느껴지는 글로벌 문화시대 보편성과 한

Corresponding author ; Suk-Hyang Yang

Tel. +82-61-750-3682, Fax. +82-61-750-3680

E-mail : maria@sunchon.ac.kr

국적 이미지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세계화 의상으로 기대되는 아이템이라 할 것이다. 이은형과 조효숙(2009)은 배자를 전통 복식 중 서구화된 일상생활에서 보다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는 복식으로서 과거 속에서의 존재로 그치지 않고 현재의 새로운 패션 요소로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디자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복식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의 미의식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디자인개발로써 조선시대 여인들의 미의식이 담겨있는 조각보의 면구성과 색채미, 전통매듭의 형태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매듭기호를 응용하여 기하학적 조형성과 색채미 감각을 이용한 창의적 모티브를 개발하고 이들을 전통의상 디자인 콘텐츠 개발의 시도로써 조선시대 전통 배자에 응용하고자 한다.

그동안 배자를 이용한 현대화에 관한 디자인 연구를 살펴보면 문윤경(2012), 임현주와 조효숙(2010), 이은형과 조효숙(2009), 조오순(2003), 왕신정(2007), 유관순(2012)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은형과 조효숙(2009)의 현대의상과 배자와의 코디네이션을 통한 새로운 패션이미지 연출을 제외하고는 한국적 정체성과 현대적 패션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전통복식의 현대화 작업으로 대부분 전통 배자의 형태적 변화를 통한 새로운 현대패션을 시도한 연구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독특한 조형미로 전통 조각보자기의 면구성과 색채미, 전통매듭의 기호를 복합적으로 응용하여 전통 의상 배자의 현대적 활용을 시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방법은 전통배자, 전통조각보, 전통매듭에 관하여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후, 박물관이나 개인적으로 소장되고 있는 조선시대 조각보, 매듭, 배자와 관련된 도록작품집 등을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디자인 전개는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창의적 디자인 개발을 위해(목소리, 조진숙, 2014) 조각보의 면 구성 유형과 색채 조합, 매듭기호를 벡터그래픽 프로그램인 Adobe Illustrator CS6와 Adobe Photoshop CS6를 이용하여 모티브를 디자인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한 모티브와 조각 보자기에 나타난 색상을 현대적 이미지로 재해석하여 반복, 회전, 축소, 확대, 해체 등을 이용하여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

는 보편성을 지닌 새로운 현대적 감각의 전통의상 배자를 디자인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글로벌 문화시대 세계화를 위해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 이미지가 느껴지는 전통의상 배자의 발전을 기대한다. 또한 복합문화 시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세계 속에 실용화하는 시도로 세계인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디자인 콘텐츠 개발로써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디자인변화가 요구되는 저고리, 바지, 치마 등 전통의상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전통의상 배자

배자(背子)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태 및 용도가 다양하게 변화하며 이어져 내려온 역사가 매우 오래된 옷이다(이경자 외, 2003). 이러한 배자의 양식에는 무수대금(無袖對襟)의 단상의(短上衣) 배자(背子)와 대수장의(大袖長衣)인 배자(褙子)가 있는데 배자(褙子)는 통일신라의 배당(褙當)을 이은 조선시대의 궁중복이며(강두이, 1992) 배자(背子)는 예복용이 아닌 일상용으로써 소매가 없는 일종의 등거리 같은 형식으로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이며 왕부터 서민 남녀까지 보편적으로 착용한 복식이다(이경자 외 2003). 일반적으로 저고리 위에 덧입는 조끼 모양의 옷으로서 소매와 락, 고름이 없으며, 깃은 좌우 모양이 같고 맞닿는다. 여밈은 앞길 양쪽 겨드랑이 밑에 긴 끈을 달아 뒤 고리에 걸어 앞에서 매어 여미도록 되어 있는(김영숙 편, 1999) 지금의 형태는 조선후기부터 정착되어 착용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착용되는 의상이다(이은형, 조효숙 2009).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배자 중 조선후기의 배자 형태인 소매가 없고 깃이 마주보는 대금형의 짧은 상의(上衣) 형태의 무수대금(無袖對襟) 단상의(短上衣) 배자(背子)를 전통의상 디

<표 1> 조선후기 유물배자의 구성 특징

유물배자	시기	구성 특성	출처
	<p><그림 1> 동래정씨일가 배자 (1574-1669)</p>	<p>솜배자, 방령, 양옆 모두 트임, 격자화문 단, 길이95cm, 폭52cm</p>	<p>환생p.128 서울역사박물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2006, 서울: 씨티파트너.</p>
	<p><그림 2> 전주이씨 변 (1636-1731)</p>	<p>누비배자, 등에서 어깨로 연결된 좁아지는 앞길의 끝에 달린 끈으로 옆선에 부착된 고리에 걸어 앞에서 교차하여 착용, 길이66cm, 폭55cm, 깃, 동정 없음</p>	<p>환생p.129 서울역사박물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2006, 서울: 씨티파트너.</p>
	<p><그림3> 파평 윤씨 (1735-1754)</p>	<p>솜배자, 양옆 트임 부분 넓은 고리로 앞뒤연결, 앞길 중앙 매듭단추로 연결, 방령 맞깃, 길이27.5cm, 폭24cm</p>	<p>환생p.63 서울역사박물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2006, 서울: 씨티파트너.</p>
	<p><그림4> 고종 (1864-1907)</p>	<p>겨울용 겹배자, 전단(前短)후장(後長), 동그래 맞깃, 동정, 양옆 모두 트임, 앞길겨드랑이 끈으로 뒷길 겨드랑이 고리에 걸어 앞에서 매어 착용, 태두리 검은선 장식</p>	<p>조선복식미술 p.49 금기숙. 1994, 서울:열화당.</p>
	<p><그림5> 여성용털배자, 조선후기</p>	<p>토끼털 선장식, 일상복과 예복겸용, 양단, 길이45cm, 폭55cm, 동그래 맞깃, 동정</p>	<p>우리옷과 장신구 p.249 이경자 외. 2003, 서울:열화당.</p>
	<p><그림6> 남자용겹배자, 조선후기</p>	<p>남아용 겹배자, 전단(前短)후장(後長), 양옆 모두 트임, 어깨골선, 도련과 진동 세뿔상침, 동그래 맞깃, 동정, 깃머리 끝부분에 매듭단추, 앞길겨드랑이 끈으로 뒷길 겨드랑이 고리에 걸어 앞에서 매어 착용, 길이44cm, 폭32cm, 조선후기 배자의 전형적 형태</p>	<p>한국의미 p.19 국립중앙박물관. 1988, 서울:통천문화사.</p>

자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원형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후기는 가장 조선다운 독창적 문화를 꽃피운 시기이며 조선적인 전통복식의 형태미가 완성된 시기 때 문이기도 하다. <표 1>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조선후기 유물배자 중 대표적인 무수대금(無袖對襟) 단상의(短上衣) 배자(背子)의 구성 특징이다. 동래정씨일가(1574-1669)의 배자 <그림 1>은 숨을 넣은 격자화문단 배자로서 방령맞기이며 양옆이 모두 트여있다. 길이95cm, 품52cm로 구성되어있다. 전주이씨 변(1636-1731)의 배자 <그림 2>는 누비배자로서 깃과 동정이 없다. 등에서 어깨로 연결된 좁아지는 앞길 끝에 달린 끈을 옆선에 부착된 고리에 걸어 앞에서 교차하여 착용한 형태이고 길이66cm, 품55cm이다. 파평윤씨(1735-1754)의 배자 <그림 3>은 숨배자로서 방령맞기를 하고 있다. 양옆 트임 부분을 넓은 고리로 앞뒤를 연결하였고, 앞길 중앙을 매듭단추로 연결한 형태로 길이27.5cm, 품24cm이다. 고종(1864-1907)의 배자<그림 4>는 겨울용 겹배자로서 동그래 맞기에 동정이 달려있다. 전단(前短)후장(後長), 양옆이 모두 트여있고 앞길 겨드랑이 부분 끈으로 뒷길 겨드랑이 고리에 걸어 앞에서 매어 착용하고 테두리에 검은선 장식 이 있다. 여성용틸배자(조선후기) <그림 5>는 양단에 토끼털 선장식이 되어있다. 동그래 맞기에 동정이 달려있고 일상복과 예복겸용으로 길이 45cm, 품55cm이다. 남자용 겹배자(조선후기) <그림 6>은 남아용 겹배자로서 전단(前短)후장(後長), 양옆 모두 트여있고 어깨는 골선으로 되어있다. 도련과 진동에는 세뺨삼침이 되어있고 깃머리 끝부분에 매듭단추가 달려있다. 길이 44cm, 품32cm이고 앞길 겨드랑이 끈으로 뒷길 겨드랑이 고리에 걸어 앞에서 매어 착용하였으며 조선후기 배자의 전형적 형태이다.

고찰한 바와 같이 무수대금(無袖對襟) 단상의(短上衣) 배자(背子)는 현대의 조끼와 비슷한 형태이며 청바지, 블라우스 등 현대의상과 매치가 잘 되는 옷으로서 남녀노소 모두 착용 가능하며 전통적인 이미지와 현대적 이미지가 함께 느껴지는 글로벌 문화시대 보편성과 한국적 이미지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세계화 의상의 좋은 아이템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다양한 배자

의 구성형태가 있으나 문화원형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석주선 기념민속박물관 소장 조선후기 남자용 겹배자<그림 6>을 디자인 개발의 원형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조선후기 유물 남자용 겹배자는 동정, 깃, 끈, 길의 결감, 안감을 통해 우리의 전통복식문화가 끈으로 매는 여유가 있는 끈의 문화, 강렬한 보색 대비의 옷, 선이 아름다운 복장임을 생각할 때 청색의 결감 길과 진한 황토색 안감 길, 앞길과 뒷길을 이은 붉은 끈의 강렬한 보색, 이와는 정반대로 붉은 끈의 아래로 흐르는 듯한 편안함과 여유로움, 시선을 집중시키는 새하얀 동정의 긴장감과 단정함, 마치 동정을 끌어안아 받쳐주는 듯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깃의 포용력, 도련과 옆선의 완만하게 굽은 선의 아름다움을 한국 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2. 전통 조각보

조각보자기는 서민층에서 사용한 민보로서 보자기 중에서 폐품 활용 차원에서 평민 여성들이 절약하는 생활의 지혜에서 탄생하게 된 생활용품으로 쓰고 남은 천들을 버리기 아까워 모아 두었다가 이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어 붙여서 생활에 필요한 보자기로 만들어 쓰게 됨으로써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김혜란, 2007). 천이 귀하던 당시에 남은 천을 활용해 보려는 우리 조상들의 절약정신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천 조각을 잇는 활동에는 여가시간의 활용과 직물의 재활용이라는 실용적 의미 이외에도, 화려한 배색에 대한 동경의 표현양식이었으며, 장수와 복을 비는 기원신앙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조각보자기에는 당시의 사상과 가치관에 따른 우리 조상의 일반적인 조형의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양지나, 2013., 재인용: 허동화, 1988). 현재 전승하는 옛 보자기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조각보자기는 기하학적 구성의 세련미, 색채의 조화 등 그 특이한 조형 양식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김현희, 2011). 보잘 것 없는 가지각색의 조각 천들을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창출한 뛰어난 솜씨와 탁월한 미적 감

각은 조각보를 예술적 평가의 대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허동화, 2004) 할 것이다.

조각보는 조각천을 모아서 이어놓은 것으로써 복잡한 면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면 구성은 색채에 의해 단순화되며 통일되었다. 조각보의 색채는 청, 적, 황, 흑의 음양오행설과 관련된 오방색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조각천의 색채만큼이나 다양하고 각양각색이다. 대부분 은은한 파스텔 톤의 느낌에 원색이 강조되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편안함과 긴장감을 잃지 않는 명쾌감을 주고 있다. 자투리 천이 생길 때마다 모아두었던 재료를 가지고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진 조각보에는 은은한 자연미와 자유분방한 색이 어우러져 통일감을 잃지 않으면서 긴장감이 더해진 색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임지은, 2001). 색의 느낌이나 구도에 따라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으며 색상 배치가 리듬감 있게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김선영, 2005). 조각보에 많이 사용된 색채로는 조화로운 유사색의 조화와 보색조화가 있으며 특히 청색과 홍색, 보라와 노랑의 조화가 눈에 띄는데 이는 조각보가 무채색보다는 유채색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색상의 조화가 훌륭한 조각보일수록 전체 색조에 통일성이 있어 엷은 파스텔조의 차분한 색상을 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변화와 긴장미를 잃지 않고 있다. 또한 조각보의 꼭지 부분에 사용된 색은 적색과 청색, 분홍색, 연두색이 많았으며 대체적으로 조각보 전체가 청색이면 적색을 사용하여 꼭지의 기능성 역할 뿐 아니라 장식으로서의 역할도 겸하였다. 조각보의 테두리에 사용된 색채는 테두리 안의 색이 다양하면 여러 가지 색들을 통일해 주는 의미에서 단색이 많고 반면에 테두리 안의 색이 단색이면 테두리는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변화와 통일감을 이루고 있다. 단색조 조각보들은 모시나 삼베로 제작된 것으로 흰색과 소색, 떡색이 일반적이다. 단색이지만 약간의 농담차를 둔 천 조각을 섞어 완벽한 단색조의 청초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무채색 조각보의 색채균형에 있어서는 넓은 면적의 밝은 색상들은 좁은 면적의 어두운 색채들에 의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조성빈, 2003).

3. 한국 전통 매듭

매듭은 한 가닥 또는 두 가닥 이상의 끈이나 줄을 이용하여 맺고, 엮고, 짜는 섬유제작 자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완성된 매듭은 외도래와 혼백매듭을 제외하고 대부분 앞면과 뒷면의 모양이 같고 중심에서 시작하여 중심에서 끝나며 좌우대칭을 이루는 형태이다. 이러한 매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원시인류가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 묶거나 매는 작업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생각된다. 석기시대의 돌도끼나 돌칼의 구멍에 끈을 꿰어 쓴 흔적에서 생활용 매듭을 엿볼 수 있고, 청동기시대 가락바퀴를 통해서 섬유조직에 장식적인 효과를 가미하기 시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매듭이 생활전반에 걸쳐 사용된 매듭의 형성기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장식적 용도로 변모되어 갔다. 고려시대 매듭은 장식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매듭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기로서 『고려도경』의 자료를 통해 각종 의식이나 복식에 사용하였던 물품에 대한 기록에서 살펴 볼 수 있고 고려불화와 고려청자에서도 매듭의 양식을 찾을 수 있다(임상임, 안명숙, 2003).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매듭이 다양하게 애용되어 매듭과 끈목, 술이 실생활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그 용도가 절정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매듭의 용도는 크게 생활용, 의류용, 의례용, 장식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선시대 매듭의 용도는 주체를 꾸미기 위한 장식용 매듭이 많았다. 그러나 조선 말기 이후 일제강점기에 전통 문화의 말살 정책으로 많은 문화가 훼손되었고 근대화의 물결과 함께 서구 문물이 급격히 밀려옴으로써 매듭 또한 용도가 차츰 줄어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전통매듭은 1968년 우리 전통매듭의 맥을 이어오던 정연수 선생이 매듭장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현대패션에서는 한국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섬유예술 중의 하나이다(국립중앙박물관, 2004).

매듭의 구성은 여러 올의 실로 짠 끈목(多繪)과 술로 이루어져 있다. 끈목이란 여러 올의 실을 꼬거나 짜서 만든 끈을 일컫는다. 끈목은 실

을 합사하여 4사, 8사, 12사, 16사, 24사, 28사, 36사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매듭은 지방에 따라 명칭이 다르나 38종류의 기본형을 가지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04). 많이 사용되는 매듭은 도래매듭, 귀도래매듭, 연봉매듭, 생쪽매듭, 장고매듭, 가지방석매듭, 매미매듭, 잠자리매듭, 국화매듭, 나비매듭, 가락지매듭, 난간매듭이 있다(김보영, 금기숙, 2010). 각 기본형의 형태는 다르지만 매듭을 맺기 시작할 때는 언제나 일정한 길이의 끈을 반으로 접어서 중심을 잡고 그 두 가닥을 질서있게 엮어 균형을 맞추며 조인다. 이 크고 작은 매듭들을 보기 좋게 배열하며 수직으로 연속 구성하고 끝에는 술을 유연하게 늘어뜨린다. 술의 종류에는 딸기술, 봉술, 방망이술, 낙지발술, 끈술, 방울술, 후수술, 금전지술, 잔술 등이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04).

III. 전통배자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조각보의 면구성과 매듭 기호

1. 조각보의 면 구성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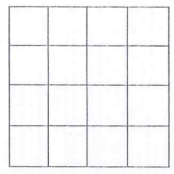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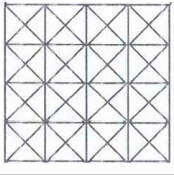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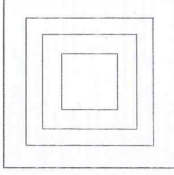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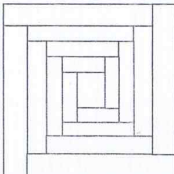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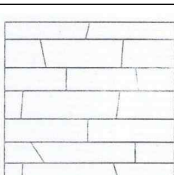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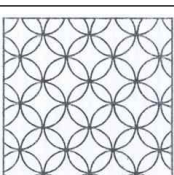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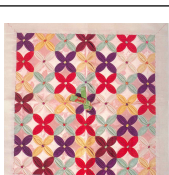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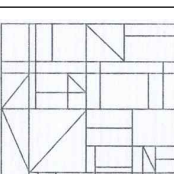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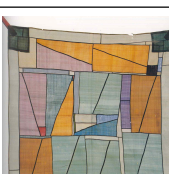
조각보의 면구성은 크게 구분하여 수평과 수직선이 교차하는 기하학적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각을 이루는 구성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이연순, 최효선 2011). <표 2>에 보여진 바와 같이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구성 유형을 분석하였다.

양지나(2013)는 사각형, 방사형, 여의주문형, 자유형으로 분류하여 사각형안에 직사각형, 정사각형, 삼각형 구성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방사형에는 회문자형, 바람개비형 등을 함께 포함시켰다. 김현희(2011)는 사각형, 삼각형, 동심원형, 바람개비형, 수직형, 여의주문형, 자유형으로 분류하여 삼각형 안에 다이아몬드형을 포함시키고 수평형이 누락되어 있는데 아마도 수직형 안에 함축시켜 놓는 듯하다. 문윤경과 박현주(2010)는 사각형, 삼각, 동심원형, 바람개비형, 여의문보형, 자유형으로 분류하여 수직·수평형이 누락되어 있다. 박은영(2005)은 정방형, 사선형, 동심원형, 바람개비형, 색동형, 여의주문형, 다이아몬드형, 수직형, 자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각형을 사선형과 다이아몬드형으로 세분화했고 색감과 규칙성이 특이한 색동형이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수평형이 누락되어 있는데 김현희

<표 2> 선행 연구자별 면 구성 유형

선행 연구	구성 유형
양지나(2013)	사각형, 방사형, 여의주문형, 자유형
김현희(2011)	사각형, 삼각형, 동심원형, 바람개비형, 수직형, 여의주문형, 자유형
문윤경, 박현주(2010)	사각형, 삼각형, 동심원형, 바람개비형, 여의문보형, 자유형
박은영(2005)	정방형, 사선형, 동심원형, 바람개비형, 색동형, 여의주문형, 다이아몬드형, 수직형, 자유형
김선영(2005)	정방형, 사선형, 다이아몬드(마름모)형, 색동형, 회문자형, 바람개비형, 회문형, 장방형, 자유형, 여의주문형
최선미, 양숙향(2003)	바둑판형, 사선형 또는 다이아몬드형, 색동형, 바람개비형, 회문형, 장방형, 자유분할형, 회문자형, 자유형, 여의주문형
조성빈(2003)	사각문양[정사각형, 직사각형, 회(回)자문형, 수직, 수평형], 삼각문양, 사다리 문양, 여의주문양, 자수문양
임지은(2001)	사각형, 방사형, 여의주문형, 수직, 수평형, 자유형
이현경(1999)	정방형, 사선형, 마름모형, 겹사각형(다이아몬드형), 바람개비형(몬드리안형), 여의주문형, 수직형, 수평형, 자유형

<표 3> 조각보의 면 구성 유형과 특징

구성 유형	패턴	이미지	구성 특성
사각형			일정한 크기의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조각천이 모여서 이루어진 형태. <그림 7> Sang Po, 19C. 출처: Rapt in colour (p.59) Powerhouse Museum and The museum of Embroidery. 1998, Sydney: Powerhouse Publishing.
삼각형			기본 단위 삼각형이 두 개 모여 사선을 이루거나 네 개 모여 다이아몬드모양을 이루는 형태. <그림 8> 면직 세모조각보, 19C. 출처: 이렇게 예쁜 보자기(p.178) 허동화. 2004, 서울:한 국자수박물관.
회(回)자문형			중앙의 네모꼴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듯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형태. <그림 9> 회자문상보, 19C. 출처: 이렇게 예쁜 보자기(p.239) 허동화. 2004, 서울:한 국자수박물관.
바람개비형			중앙에 정(井)자를 중심으로 바람개비 날개가 돌아 가는 듯한 형태. <그림 10> 조각홀보, 19C. 출처: 이렇게 예쁜 보자기(p.204) 허동화. 2004, 서울:한 국자수박물관.
수직·수평형			수직·수평선을 이용한 형식으로 선을 위주로 간격이 크고 작게 나누어진 방형이 반복되는 형태. <그림 11> 조각옷보 19C. 출처: 이렇게 예쁜 보자기(p.141) 허동화. 2004, 서울:한 국자수박물관.
고전문 (여의주문)형			같은 크기의 원들이 보자기 전면에 걸쳐 일정한 간격으로 포개진 형태. <그림 12> 오색고정문상보, 19C. 출처: 이렇게 예쁜 보자기(p.278) 허동화. 2004, 서울:한 국자수박물관.
자유형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이 자유롭게 결합된 형태. <그림 13> Oppo, 19C. 출처: Rapt in colour (p.99) Powerhouse Museum and The museum of Embroidery. 1998, Sydney: Powerhouse Publishing.

(2011)와 같이 수직형안에 수평형을 포함시킨 듯하다. 김선영(2005)은 정방형, 사선형, 다이아몬드(마름모)형, 색동형, 회문자형, 바람개비형, 화문형, 장방형, 자유형, 여의주문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은영(2005)처럼 삼각형을 사선형, 다이아몬드형으로 세분하고 김선영(2005)처럼 색동형을 삽입하고 있으며, 조각보 중심에 바느질 선으로 화문을 넣은 화문형과 수평형 이미지의 조각보를 장방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선미와 양숙향(2003)은 바둑판형, 사선형 또는 다이아몬드형, 색동형, 바람개비형, 화문형, 장방형, 자유분할형, 회문자형, 자유형, 여의주문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각형을 바둑판형으로, 수평형을 장방형으로, 자유형을 자유분할과 자유형으로 세분하여 선행 연구 중 가장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다. 조성빈(2003)은 사각문양(정사각형, 직사각형, 회(回)자문형, 수직·수평형), 삼각문양, 사다리문양, 여의주문양, 자수문양으로 분류하고 사각형 안에 직사각형, 회(回)자문형, 수직·수평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사다리문양과 자수문양을 삽입하여 분류하고 있다. 임지은(2001)은 사각형, 방사형, 여의주문형, 수직·수평형, 자유형으로 분류하여 사각형 안에 사선형과 다이아몬드형을 포함시키고 방사형 안에 색동형과 바람개비형을 넣어 분류하고 있다. 이현경(1999)은 정방형, 사선형, 마름모형(다이아몬드형), 겹사각형, 바람개비형(몬드리안형), 여의주문형, 수직형, 수평형, 자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회문자형을 겹사각형으로 분류하고 바람개비형을 몬드리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여러 선행 연구 분석을 토대로 조각보의 구성유형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면구성 유형을 다음 <표 3>과 같이 사각형, 삼각형, 회(回)자문형, 바람개비형, 수직·수평형, 고전문(여의주문)형, 자유형으로 분류하고 구성 특성을 정리하였다.

2. 매듭과 술의 기호

매듭은 형태의 시각적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는 조형예술이다. 김보영과 금기숙(2010)은 우리 전통매듭이 지니는 조형적 요소와 아름다움에는 우리만의 독특한 미적 특징이 있으며 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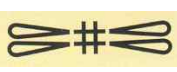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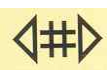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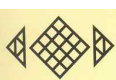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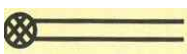
모여 면이 되고, 면이 모여 입체가 되는 조형 원리와 마찬가지로 매듭도 끈목이 모여 평면 매듭이 되고 이러한 평면적 매듭이 모여 입체적인 매듭의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매듭의 조형성을 균형의 미, 절제의 미, 조화의 미, 길상의 미로 분석하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고유의 조형미를 디자인의 세계화라는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한국적 디자인을 정립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현대적 활용에 있어 매듭은 우리 고유의 조형미를 대표하며 우리만의 독창성 있는 디자인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모티브가 될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가민과 이상은(2012)의 연구에서도 한국 매듭은 생활전반에서 품격을 높여주는 조형예술품으로서 우리민족의 미적의식의 표현에 있어 중요한 소재이며 충분히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조형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 매듭 속에 내재된 형과 수의 원리는 현대디자인의 예술품에 접목하여 다양하게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 한국적 감성의 현대적 디자인 개발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8가지의 매듭 중에서 안경매듭, 생쪽매듭, 석씨매듭, 단추매듭, 국화매듭, 봉술, 장구매듭, 거북난간매듭, 가락지매듭, 잠자리매듭 등을 기하학적으로 나타낸 매듭과 술의 기호<표 4>를 조각보자기의 구성유형별로 콜라보레이션하여 전통의상 배자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

IV. 전통배자의 디자인 전개 및 개발

조각보의 면구성과 매듭기호를 벡터그래픽 프로그램인 Adobe Illustrator CS6와 Adobe Photoshop CS6를 이용하여 사각형, 삼각형, 회(回)자문형, 수직·수평형, 바람개비형, 고전문형, 자유형으로 나누어 안경매듭, 생쪽매듭, 석씨매듭, 단추매듭, 국화매듭, 봉술, 장구매듭, 거북난간매듭, 가락지매듭, 잠자리매듭의 기호를 응용하여 현대적인 새로운 조형적 이미지의 모티브 7개를 개발하였다. 위와 같이 조각보자기의 면

<표 4> 매듭과 술의 기호

				
도래 매듭	귀도래 매듭	외도래 매듭	단추 매듭	잠자리 매듭
				
생쪽 매듭	장구 매듭	삼정자 매듭	가지방석 매듭	매화 매듭
				
국화 매듭	세벌감개 매듭	병아리 매듭	석씨 매듭	안경 매듭
				
벌 매듭	나비 매듭	매미 매듭	거북난간매듭	가락지
				
봉술	딸기술	낙지발술	끈술	방울술

(출처 : 한국 전통 매듭(p.43) 국립중앙박물관, 2004, 서울: 중앙문화인쇄)

구성 유형별로 디자인된 모티브를 각각 반복, 회전, 축소, 확대, 해체 등 다양한 변화와 전통 조각보자기에 사용된 색상을 이용하여 현대적 이미지로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또한 이를 글로벌 문화시대 전통의상의 세계화와 저고리, 바지 등 전통의상 디자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통의상 배자의 창의적 디자인 개발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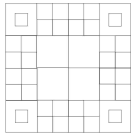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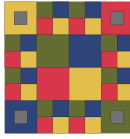

1. 사각형 면 구성과 안경매듭기호를 활용한 배자 디자인

오리지널 보자기의 사각형 구성 이미지를 반영한 정사각형 윤곽선을 전체적으로 배열한 후 중앙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4면을 다시 각각 4등분하고 가장자리 4곳에는 안경매듭기호를 삽입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사각형 보자기의 original image와 안경매듭과의 조화를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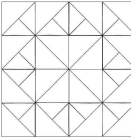


려 모티브를 개발하였다. 색채는 사각형 보자기의 original image에서 명도와 채도를 조절하여 R52 G63 B120, R214 G56 B67, R227 G197 B77, R93 G107 B51, R114 G113 B113으로 각각 채색하였다. 배자 디자인의 문양 배치는 앞길 좌우와 동정에 개발된 문양을 배치하고 가슴 아래에는 끈은 강조되도록 R93 G107 B51로 밝게 하였다. 깃과 안감은 R226 G179 B68로 채색하여 산만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뒷면은 보자기의 색상 중에서 예로부터 궁중에서 주로 착용하였던 음양오행에서 동쪽을 상징하는 푸른 계열의 색상을 채택하였다. 진동선 바로 아래에는 개발한 문양을 가로로 넣어 단조로움을 피하고 안정감을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전통성을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이 함께 느껴지도록 디자인하였다.

2. 삼각형 면구성과 석씨, 생쪽 매듭기호를 활용한 배자 디자인

〈표 5〉 사각형 면구성과 안경매듭기호를 활용한 배자 디자인

Original image	Convergence basic motive	Applying color	배자 디자인
사각형구성			
안경매듭기호			

〈표 6〉 삼각형 면구성과 석씨, 생쪽 매듭기호를 활용한 배자 디자인

Original image	Convergence basic motive	Applying color	배자 디자인
삼각형구성			
생쪽, 석씨매듭기호			

오리지널 보자기의 삼각형 구성 이미지를 반영한 삼각형 윤곽선을 전체적으로 배열한 후 중앙을 중심으로 석씨매듭기호를 배치하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4면을 각각 생쪽매듭기호를 삼각형과 조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삼각형 보자기의 original image와 생쪽매듭과 석씨매듭과의 조화를 살려 모티브를 개발하였다.

색채는 삼각형 보자기의 original image 색상에서 명도와 채도를 조절하여 R77 G63 B59, R224 G214 B196, R200 G105 B64, R226 G179 B68, R200 G194 B200, R103 G90 B130, R210 G98 B135, R237 G238 B141로 각각 채색하였다. 배자 디자인의 문양 배치는 앞길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은 R210 G98 B135 단색으로, 앞길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은 개발한 모티브 문양을 각각 대칭하여 채색함으로써 삼각형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하얀 동정의 긴장감이 서로 조화되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 이미지로 디자인하였다.

3. 회(回)자문형 면구성과 단추, 봉술, 국화, 장구매듭기호를 활용한 배자 디자인

오리지널 보자기의 회(回)자문형 구성 이미지를 반영한 정사각형 윤곽선을 만든 후 중앙에 단추매듭을, 둘레에는 봉술매듭을 방사형으로 배치하고 모서리 가장자리 4곳에 중앙의 단추매듭과 중복을 피하고 안정감을 주기위해 국화매듭을 45°회전하여 정방향으로 배열하고 그 사이에는 장구매듭을 넣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과 함께 회(回)자문형 보자기의 original image와 매듭과의 조화를 살려 모티브를 개발하였다. 색채는 회문자형 보자기의 original image 색상에서 명도와 채도를 조절하여 R14 G74 B155, R238

<표 7> 회(回)자문형 면구성과 단추, 봉술, 국화, 장구매듭기호를 활용한 배자 디자인

Original image	Convergence basic motive	Applying color	배자 디자인
회자문형구성			
단추, 국화, 봉술, 장구매듭기호			

<표 8> 바람개비형 면구성과 가락지, 거북난간 매듭기호를 활용한 배자 디자인

Original image	Convergence basic motive	Applying color	배자 디자인
바람개비형 구성			
거북난간, 가락지 매듭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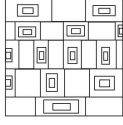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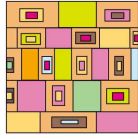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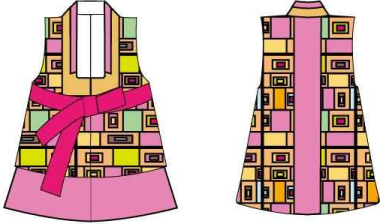

G40 B98, R255 G205 B3, R113 G191 B68로 각각 채색하였다. 문양 배치는 바둑판 배열, 축소, 해체법을 이용하였으며 바탕색은 R145 G38 B143으로 하였다. 배자 디자인은 앞길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은 채색된 모티브 디자인을 그대로 배치하여 디자인된 모티브의 특성이 돋보이도록 하였으며, 뒷길은 축소하여 큰 문양의 산만함을 잔잔한 이미지로 배열하였다. 깃의 색상은 앞길 문양의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정돈된 이미지를 주기위해 디자인된 모티브의 색상에서 R255 G205 B3의 단색으로 하고, 흰색의 전통적인 동정을 넣었다. 안감은 R255 G205 B3로 걸감과 보색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가슴에 매는 끈은 R234 G85 B20의 단색으로 채색함으로써 진동선 아래 앞길과 단조로운 뒷면에 포인트

를 주어 활동성과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4. 바람개비형 면구성과 가락지, 거북난간 매듭기호를 활용한 배자 디자인

오리지널 보자기의 바람개비형 구성이미지를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중앙에서 바람개비형상으로 배치한 후 가락지매듭을 중앙의 정사각형에 배치하고 거북난간매듭은 가장자리 4곳에 배치하여 바람개비형 구성 보자기 이미지와 가락지매듭, 거북난간매듭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모티브를 개발하였다. 색채는 바람개비형 구성 보자기의 original image 색상에서 명도와 채도를 조절하여 R231 G56 B40, R23 G28 B97, R144 G83 B66, R221 G85 B76, R56 G71 B157, R203

〈표 9〉 수직·수평형 면구성과 안경매듭기호를 활용한 배자 디자인

Original image	Convergence basic motive	Applying color	배자 디자인
수직·수평형 구성			
안경매듭 기호			

G212 B42, R180 G94 B146, R255 G202 B62, R232 G197 B187로 각각 채색하였다. 배자 디자인의 문양 배치는 모티브 디자인 자체가 바람개비 형상으로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깃을 포함하여 앞길과 뒷길 모두를 디자인된 모티브를 그대로 배치하여 활동감을 주고자 하였다. 흰색의 동정과 가슴부위에 R231 G56 B40의 붉은 끈으로 포인트를 주고 안감에는 대조적으로 차분한 청색계열의 R23 G28 B97를 채색하여 전체적으로 전통성을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이미지로 디자인하였다.

5. 수직·수평형 면구성과 안경매듭기호를 활용한 배자 디자인

오리지널 보자기의 수직·수평형 면 분할 구성 이미지를 반영한 수직·수평형 윤곽선을 만든 후 안경 매듭을 이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모티브를 개발하였다. 색채는 수직·수평형 면 분할 구성 보자기의 original image 색상에서 명도와 채도를 조절하여 바탕색은 R253 G216 B116으로 하였으며, R231 G135 B180, R218 G224 B0, R230 G22 B115, R237 G193 B100, R246 G167 B0, R149 G108 B83, R204 G234 B250, R166 G211 B150으로 각각 채색하였다. 배자 디자인의 문양 배치는 병렬식 배열법을 이용하였으며 모티브 디자인 자체가 수직·수평형 면 분할로 현대적인 기하학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길과 뒷길 모두를 디자인된 모티브를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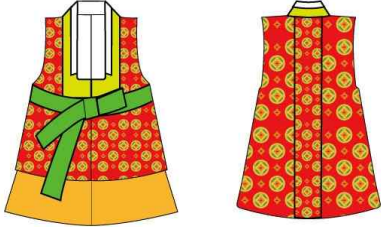
배치하여 현대적인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다. 깃은 R237 G193 B100, 동정은 R231 G135 B180으로 단색 처리하여 안정감을 주도록 하였다. 또한 가슴부위에 R230 G22 B115의 붉은 끈으로 전통적인 이미지와 함께 포인트를 주고 안감과 뒷면의 중앙에 수직으로 핑크계열의 R231 G135 B180을 단색으로 채색하여 전체적으로 따뜻한 안정감과 함께 전통성을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이미지로 디자인하였다.

6. 고전문형 면구성과 석씨, 잠자리매듭기호를 활용한 배자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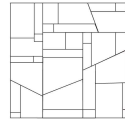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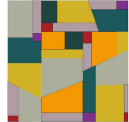

오리지널 보자기의 고전문형 구성 이미지를 반영한 둥근 윤곽선을 만든 후 중앙에는 석씨매듭을 배치하고 고전문형보자기에서 보이는 유선형을 2겹 두르고 둥근 윤곽선과 유선형 사이에 잠자리매듭 기호를 이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모티브를 개발하였다. 색채는 고전문형 구성 보자기의 original image 색상에서 명도와 채도를 조절하여, R128 G176 B86, R251 G204 B59, R108 G77 B119, R248 G182 B45, R218 G224 B0로 각각 채색하였다.

문양 배치는 바둑판 배열, 축소, 해체법을 이용하였으며 바탕색은 R255 G0 B0로 하였다. 배자디자인은 앞길과 뒷길 모두를 디자인된 모티브를 그대로 배치하여 고전문형의 화려함과 함께 현대적인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으며 특히 뒷길 중앙 세로로 너무 산만하지 않도록 모티브를

<표 10> 고전문형 면구성과 석씨, 잠자리매듭기호를 활용한 배자 디자인

Original image	Convergence basic motive	Applying color	배자 디자인
고전문형 구성			
잠자리, 석씨매듭기호			

<표 11> 자유형 면구성과 봉술매듭기호를 활용한 배자 디자인

Original image	Convergence basic motive	Applying color	배자 디자인
자유형구성			
봉술매듭기호			

축소하여 잔잔하게 문양을 배치하였다. 흰색의 동정, R218 G224 B0 연두계열의 깃, 앞길과 대조색인 R94 G181 B48의 초록 끈, R248 G182 B45 안감을 단색으로 처리하여 화려하면서도 안정감을 주도록 채색하여 전체적으로 따뜻한 화려함과 함께 전통성을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이미지로 디자인하였다.

7. 자유형 면구성과 봉술매듭기호를 활용한 배자 디자인

오리지널 보자기의 자유형 면 구성 이미지를 기하학적으로 봉술매듭 기호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모티브를 개발하였다. 색채는 자유형 면 구성 보자기의 original image 색상에서 명도와 채도를 조절하여 R174 G175 B156, R24 G88

B89, R211 G179 B41, R176 G155 B162, R126 G49 B142, R170 G31 B36, R243 G152 B0로 각각 채색하였다. 배자 디자인의 문양 배치는 병렬식 배열법을 이용하였으며 모티브 디자인 자체가 현대적인 기하학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길과 뒷길 중앙의 수직방향으로 디자인된 모티브를 그대로 배치하여 현대적인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다. 또한 깃, 안감, 뒷길은 R243 G152 B0로 각각 단색 처리하여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도록 하였으며, 가슴부위 R170 G31 B36의 붉은 끈은 흰색의 동정과 함께 전통적인 이미지와 포인트를 주어 전체적으로 따뜻한 안정감과 함께 전통적이면서 현대적 이미지로 디자인하였다.

V. 결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의 글로벌 문화 사회에서 세계 각국은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 자산인 한복의 독창적인 전통미를 이용하여 세계인의 보편성을 담은 재창조적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인의 미의식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경쟁력있는 디자인개발로써, 조선시대 여인들의 미의식이 담겨있는 조각보의 면 구성과 색채미, 전통매듭의 형태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매듭기호를 응용하여 창의적 모티브를 개발하고 이들을 전통의상 디자인 콘텐츠 개발의 시도로써 조선후기 전통의상 배자에 응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조각보의 면 구성 유형과 매듭기호를 벡터그래픽 프로그램인 Adobe Illustrator CS6와 Adobe Photoshop CS6를 이용하여 사각형, 삼각형, 회(回)자문형, 수직·수평형, 바람개비형, 고전문형, 자유형으로 나누어 안경매듭, 생쪽매듭, 석씨매듭, 단추매듭, 국화매듭, 봉술, 장구매듭, 거북난간매듭, 가락지매듭, 잠자리매듭의 기호를 이용하여 전통성을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새로운 조형적 이미지의 모티브 7개를 개발하였다. 위와 같이 조각보자기의 면 구성 유형별로 디자인된 모티브 7개를 각각 반복, 회전, 축소, 확대, 해체 등 다양한 변화와 전통 조각보자기에 사용된 색상을 이용하여 현대적 이미지로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또한 이를 글로벌 문화시대 전통의상의 세계화와 저고리, 바지 등 전통의상 디자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통의상 배자의 창의적 디자인 개발을 면 구성 유형별로 디자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를 통해 글로벌 문화시대 세계화를 위해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 이미지가 느껴지는 전통의상 배자의 발전이 기대되는 바이다. 또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세계 속에 실용화하는 시도로 세계인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현대적 이미지의 전통의상 디자인콘텐츠 개발로써 전통성을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디자인변화가 요구되는 저고리, 바

지, 치마를 비롯한 전통의상의 세계화와 함께 조각보와 전통매듭의 융복합 텍스트일 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상품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금기숙. (1994). *조선복식미술*. 서울:열화당.
- 강두이. (1992). 배자의 양식변천에 관한 소고, *복식*, 19, 139.
- 국립중앙박물관. (1988). *한국의 미*. 서울:통천문화사.
- 김선영. (2005). *조각보를 중심으로 본 전통보자기 미의 현대적 재해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편). (1999).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 김현희. (2011). *보자기 만들기*. 서울: 미진사.
- 김혜란. (2007). *천연염료와 전통보자기 기법의 재해석으로 전개시킨 DTA*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목소리, 조진숙. (2014). 전통 물고기문양을 모티브로 한 창의적 디자인 개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3), 81-100.
- 문윤경, 박현주. (2010). 전통보자기의 조형성을 활용한 조각보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31-132.
- 문윤경. (2012). 조선시대 배자의 특징을 응용한 베스트 디자인 연구. *한복문화*, 15(1), 115-130.
- 박은영. (2005). *전통조각보의 문화콘텐츠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역사박물관,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2006). *환쟁*. 서울: 씨티파트너.
- 양지나. (2013). 전통 조각보 기법에 나타난 조형성 및 여성복 디자인 개발을 연구. *동양예술*, 22, 244-250.
- 왕신정. (2007). *혜원신윤복의 풍속화를 응용한 현대 배자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관순. (2012). 생활한복 상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15(1), 69-83.
-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서울: 열화당.
- 이연순, 최효선. (2011). 한국전통조각보 및 토시를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제안 및 디지털 프린트 직물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3), 165-175.
- 이은형, 조효숙. (2009). 한국 전통 배자의 복식사적 고찰과 현대화 작업. *복식*, 59(9), 115-130.
- 임현주, 조효숙. (2010). 조선시대 배자류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복식*, 60(3), 56-65.
- 조성빈. (2003). *조각보의 현대적 표현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오순. (2003). 배자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생활과학 연구*, 7, 137-149.
- 최선미, 양숙향. (2003). 조각보 이미지를 이용한 여성생활한복 디자인 개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9(2), 147-148.
- 허동화. (1988). *옛 보자기*. 서울: 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
- 허동화. (2004). *이렇게 예쁜 보자기*. 서울: 한국자수박물관.